

일본 도쿄대 현대한국연구센터 문 열어

“한·일 공동 21세기 한반도 연구”

일본 도쿄대에 현대한국연구센터(센터장 강상중 도쿄대 교수)가 5일 문을 열었다. 도쿄대 연구소 가운데 아시아의 특정 한 나라 만을 대상으로 한 곳은 이 연구소가 처음이다. 연구센터는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와 일본연구소를 비롯한 한국내 학술기관 및 연구원들과의 인적교류·공동연구를 추진하게 된다. 한반도의 특히 사회·정보·문화 등을 집중 연구할 계획이다.



일본 도쿄대 현대한국연구센터 현판식이 5일 열렸다. 왼쪽부터 이시다 히데타카(石田英敬)도쿄대 교수, 다나카 아키히코(田中明彦) 도쿄대 부총장, 강상중 센터장, 김성엽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 이어령 중앙일보고문. 이 고문은 센터의 고문·자문을 맡고 있다.

강상중 교수는 “그간 한국의 중세와 근대를 연구한 학자는 있었지만 현대한국학을 전문으로 하는 학자와 집적된 지식은 없었다”며 “올해 한국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센터를 발족하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다나카 아키히코(田中明彦) 도쿄대 부총장은 “현대 한국 연구는 21세기의 현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센터 설립은 글로벌 캠퍼스를 지향하는 도쿄대의 목표에 한걸음 다가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매년 20만 달러씩 5년간 센터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와 이어령 중앙일보 고문, 마쓰노 요리히사(松野頼久) 관방부(副)장관, 김성엽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이시다 히데타카(石田英敬) 도쿄대 정보학환(情報學環)장 등이 참석했다.